

ITU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 개최

■ 박민정*

1. 개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Summit)’가 남북 아메리카를 잇는 중심부에 위치한 파나마의 파나마 시티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ITU의 ‘Connect the World’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파나마 Ricardo Berrocal 대통령의 후원하에 파나마 정부가 주최하여 ITU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미대륙국가간전기통신위원회(CITEL), 전기통신지역기술위원회(COMTELCA), 카리브해전기통신연합(CTU) 등의 지역 기구도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파나마 대통령, 코스타리카 대통령 등 7명의 미주 지역 정상급 인사를 포함하여, 장관, 지역 개발은행 및 단체, 국제기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비정부 기구, 학계 대표 등 총 36개국에서 약 65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ITU가 ICT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Connect the World’의 이니셔티브와 2012년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345, mjpark@kisdi.re.kr

2. ‘Connect the World’ 이니셔티브 개관

ITU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의 ‘연결성(connectivity)’ 목표¹⁾를 이행하고, ITU 세계정보통신개발회의(WTDC)에서 채택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의 동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Connect the World’ 이니셔티브를 개시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모든 지역과 국가가 각기 처한 특정한 어려움을 고려하며 연결성을 증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세계의 연결되지 못한 지역에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야심 찬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부, 민간,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단체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Connect the World 정상회의’는 ‘Connect the World’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ICT 네트워크의 확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고위급 행사로서,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개최되어 왔다. ITU는 이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투자 및

〈표 1〉 ITU ‘Connect the World 정상회의’ 개최 현황

지역	개최시기	개최장소	논의주제
아프리카	2007년 10월	르완다 키갈리	투자촉진 및 균형, 브로드밴드 인프라 확장, ‘라스트마일’ 접속 솔루션,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규제 등
CIS	2009년 11월	벨라루스 민스크	브로드밴드망 확장, 디지털방송 전환, 역량개발, 사이버 보안, ICT 투자 촉진 정책·규제 등
아랍	2012년 3월	카타르 도하	접근성, 신뢰·보안, 디지털 콘텐츠 등
미주	2012년 7월	파나마 파나마시티	긴급통신, 디지털 방송, 브로드밴드 접속, 인터넷 접속비 인하, ICT 인력 구축 등
아시아태평양	2013년 예정	미확정	미확정

자료: Connect the world 웹페이지, <http://www.itu.int/ITU-D/connect>

1)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WSIS는 2015년까지 국가별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모든 마을, 대학, 연구소, 도서관, 정부기관 등을 연결(connect)하는 것을 목표로 11개의 행동노선(Action Line)을 승인하였다.

고용을 촉진하고, 더욱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ICT 네트워크와 접속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마련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0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Connect Africa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Connect CIS 정상회의', 2012년에는 'Connect Arab 정상회의', 그리고 지난 7월에는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3.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 주요 결과

'Connect the World 정상회의' 중 네 번째로 개최된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는 역내 광범위한 브로드밴드의 연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ICT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동 정상회의는 ICT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개도국이 처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고위급 대화 패널 세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력방안과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이해관계자 세션, 그리고 미주 지역 대표들의 정치적 노력을 제시하기 위한 정상회의 성명(Summit Communiqué) 발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1) 개최토론: 브로드밴드로 구축된 미래를 향하여

2011년 10월에 개최된 '브로드밴드 리더십 정상회의'는 UN 새천년 개발목표(MDG)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브로드밴드 통합'을 내세우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전 세계 커뮤니티가 공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개최토론 세션은 미주 지역에서 브로드밴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브로드밴드 통합의 증진을 위해 역내 이해관계자가 취해야 할 이니셔티브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TU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이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콜롬비아 정부통신부 장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공행정 장관, 미국 국제통신 및 정보정책 대사, INTEL 부사장 등 6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패널들은 자국의 관련 경험을 공유하였고, 빈곤감소와 기회창출을 위한 디지털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broadband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및 민관협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토론에서 패널들은 broadband 서비스의 높은 비용, 사용자들의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혜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이용률, 학교연결성 및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적절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부족, 낮은 투자율, 투자에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규제 등을 broadband의 확산과 관련한 도전과제로 언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세금감면은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밖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과 함께, 나이, 장소, 문화적 차이를 초월한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강조되었다.

(2) 인터랙티브 패널 1: broadband의 자금공급 - 정부의 지원

ICT 특히, broadband는 사회경제발전의 핵심동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broadband의 혜택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도국들은 broadband 보급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여러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고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broadband 보급을 위한 자금공급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인터랙티브 패널 세션에서는 broadband 자금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TU 전기통신개발국(BDT) 브라히마 사노우 국장의 중재로 진행된 동 세션은 안티가 바부다 정보통신부 장관, 멕시코 교통통신부 장관, 우루과이 ANTEL 회장 등 9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패널 논의는 broadband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고려해야 하는 격차(gap), 민관협력, 학계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최종사용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벽지 지역의 커버리지 증대, broadband 이용 가속화, 비용감소, 보편적서비스펀드

의 효과적인 활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정책 개발 등이 도전과제로 제시되었다. 패널들은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정의하여 양측 간의 중복적인 노력 투입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정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더욱 빠르게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가 정신, 일자리 창출, 혁신, 지속가능성 등을 제안하였다.

(3) 인터랙티브 패널 2: 디지털 통합 - 목소리가 없는 자에게 목소리를

디지털 통합은 국가 및 국제 개발목표에 맞춰 통합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근본이 된다. 장애인, 여성, 청소년 및 어린이들은 디지털 통합을 통해 ICT를 적정비용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자와 정책입안자는 사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ICT 접속을 통한 디지털 통합을 보증해야 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투자 인센티브의 창출과 유지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많은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정상회의의 두 번째 인터랙티브 패널 세션에서는 정책지도자 및 산업계 지도자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규제, 비즈니스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영부인이자 2007년 'ITU 디지털 통합상'을 수상한 마가리타 세데노 여사가 동 세션을 중재하였으며, 자메이카 과학기술에너지광산부 장관, COMTELCA 사무총장, G3ict 부사장 등 6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패널들은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주파수 할당, 브로드밴드 보급, 보조공학, 대상자 간 협력, 이용자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정부와 산업계 간 정보공유, 역량개발 프로그램(특히 청소년 대상)의 이행, 보조공학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채택, 장애우 훈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패널들은 모든 과정에서 최종사용자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접속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에게는 접속의 혜택을 알리기 위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게는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약자임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질의 지표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인터랙티브 패널 3: 공공안전을 위한 ICT - 긴급통신 및 기후변화

긴급통신은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감지하며, 예측하여 재해위험을 줄이는 등 재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ICT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기후변화를 관리하고, 완화하며, 적응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지막 인터랙티브 패널 세션에서는 긴급통신의 역할과 ICT가 기후변화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ITU 홀린 자오 사무차장의 중재로 진행된 동 세션은 에콰도르 통신정보사회부 장관, 바베이도스 에너지·통신·투자부 장관, 남미 Terremark 회장, CITEC 사무총장 등 7명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패널 논의는 동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 공공서비스와 사회개발계획 간 조정, 정보공유, 주파수 관리 및 사용, 규제적 측면, 역량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패널들은 규제가 위기상황에서 ‘행동(action)’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기상황에 대한 국가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선 아마추어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가 닥쳤을 때 손실되거나 망가진 설비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이미지 이용의 편리성이 언급되었으며, 재해발생에 대비한 이상적인 정보저장소로서는 클라우드가 거론되었다. 국가별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있어서는 타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정보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기초 정보통신설비의 접속이 어려운 고립된 지역의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관련 기기 사용방법을 포함한 교육훈련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패널들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ITU가 지속적으로 동 이슈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며, 글로벌 ‘마스터 긴급계획(Master Emergency Plan)’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5) 'Connect Americas'를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및 파트너십 약속

본 정상회의는 국제·지역기구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대표들이 마주앉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17일 오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회의가 개최되어 ICT 네트워크 배치,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파트너와 기부자,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보유자(holder)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우선순위와 주제에 맞춰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협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열린 '파트너십 발표/약속' 세션에서 발표하였다.

〈표 2〉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해 제안된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명	기관	예산
미주 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ITU	\$42,000,000,000
가이아나 ICT 브로드밴드 전략	Gobierno Electrónico, 가이아나	\$42,000,000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로드밴드 백본 인프라 개발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신당국	\$69,000,000
광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관로권 이용	멕시코 SCT	\$323,000,000
도시 및 벽지지역의 브로드밴드 접속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파라과이 COPACO	\$11,500,000
카리브해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ITU	\$4,700,000
카리브해 주파수 관리	CTU	\$3,000,000
미주 지역 사이버 보안 문화 보급 및 사이버 위협 퇴치	ITU	\$241,875
자메이카 국가보건의정보네트워크	자메이카 보건부	\$3,991,798
국가 및 경제개발을 위한 앱 개발	CANTO	\$1,332,150
긴급통신 및 기후변화	ITU	\$40,000,000
탄력적 국가긴급통신망	웨스트인디대학	\$140,000
ICT를 통한 청년고용기회	Digital Society Jamaica	\$17,601,283

자료: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 웹페이지, <http://www.itu.int/ITU-D/connect/americas>

정부, 민간, 시민사회, 지역·국제기구를 포함 정상회의의 모든 이해관계자는 상이한 전기통신 발전 수준 및 시장상황 등 미주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면서, WTDC 등을 통해 수립된 지역의 우선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티를 위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 534억 달러 규모의 여러 프로젝트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프로젝트의 제안은 정상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추가되고 있다.

또한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지역·국제기구 및 은행, 다국적 기업, NGO 등이 미주 지역의 상이한 ICT 발전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표 3〉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파트너십

파트너	파트너십
ITU-Real Madrid Foundation	학교에서 ICT와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 통합을 지원
ITU-Telecenter.org	ICT를 활용한 ‘청년고용 및 청년기업’ 지원
앤티가 바부다	유아교육을 위한 기술 (ABITrack-1)
인텔	추가 10만 명 인구의 ICT 접속
O3b 네트워크	미주와 카리브 해 지역의 비접속 지역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O3b 네트워크
미주개발은행(IDB)	개발과 성장을 위한 센터에서의 브로드밴드
세계은행(WB) & 니카라과 TELCOR	니카라과 벽지 지역에 통신서비스 제공
GSMA	남미 모바일 사업자의 모바일 기기 절도에 대응
ITU-HUG	미주 텔레메디슨 네트워크
미주보건기구(PAHO)	남미의 텔레메디슨 지원

자료: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 웹페이지, <http://www.itu.int/ITU-D/connect/americas>

(6) 공동성명 발표

행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장관, 기업 간부 및 전기통신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미주 지역 36개국 대표가 승인한 최종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미주 지역의 저개발국,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발전에 있어 특정 장애에 직면한 작은 섬나라 아이티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 중점을 두어, 이들을 위한 행동으로서 명확한 결속과 원조 조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역적 약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지역 내 접근 수준의 전 범위를 아우르는 ICT 기반시설을 개발
2. 융합환경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며, ICT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규제 체계를 도입
3.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긴급통신 계획 수립
4. 디지털 방송으로의 원만한 이행 실행
5. 비용 절감을 위한 지방, 국가, 지역적 차원의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 개선
6. 특히 벽지 지역 및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도시 지역에서 인적·제도적 역량을 생성함으로써 개발 수단으로서의 ICT의 이용을 촉진

이 밖에 미주 지역 대표들은 다음의 내용도 우선순위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에 동의했다.

- 연구 및 교육 단체가 수행한 역할관련 지역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의 개발
- 온라인 아동 보호

(7) 'Connect Americas' 후속조치

정상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이러한 공동성명이 단발적인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약속 실행의 진행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후속조치를 통해 진

척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파트너들의 중복적인 활동을 방지하며, 시너지 효과의 구축 및 자원 사용의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후속조치는 ITU가 CITELECOM, COMTELCA, CTU 등 지역기구와 협력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4. 결 어

미주 지역은 ‘Connect Americas 정상회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이가 적정비용에 ICT와 관련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주 지역에서의 폭넓은 광대역망의 연결 및 디지털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공통 목표로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공동약속 및 다양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이 발표된 바, 지속적인 관찰, 점검, 평가 등의 후속조치를 통하여 동 정상회의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onnect the World 정상회의’는 해당 지역의 지역 및 국제기구와 정부대표, 민간기업의 유관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역내 격차해소 및 공동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 펀딩 등의 활동을 연계하며 협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Connect 정상회의의 경우, 아직 정확한 장소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2013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자 역내 주도국으로서 아태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및 발전을 위해 ‘Connect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준비회의 개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 행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협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ITU (2012). "Connect the World Initiative". 2012 Council document. C12/34.
<http://www.itu.int/ITU-D/connect/index.html>